

Homeless Memorial Day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9-96번지
전화 : 2634-4331(노실사 사무실)

주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최 :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후원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서울자유의집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2002년 12월 23일(월) 특별판

한해 300여명이상의 노숙인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Homeless Memorial Day는 일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짓날을 택해 죽어간 노숙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행사입니다.

2001년 노숙자 사망 실태와 사망 원인 분석

- 통계청 사망 자료를 중심으로 -

2002. 12. 21.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01년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료(통계청, 2001년)를 이용하여 노숙자들의 사망 실태와 사망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년 기간동안 서울시 지역에서 구축된 노숙자 관련 사회복지 기록과 의무 기록 등 다양한 자료원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노숙자 14,767명 중에서, 지난 2001년 한해만 해도 217명(사망한 장소를 서울시 지역으로 한정한다면 102명)의 사망사례가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노숙자들의 개인 신분과 관련된 제 기록들이 본인들의 회피로 인해 다소 정확도가 낮게 작성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제로는 사망하였으나 개인기록의 부정확함으로 인해 통계청 사망 자료와의 비교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작년 말에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매년 이보다 많은 수백 명의 노숙자 사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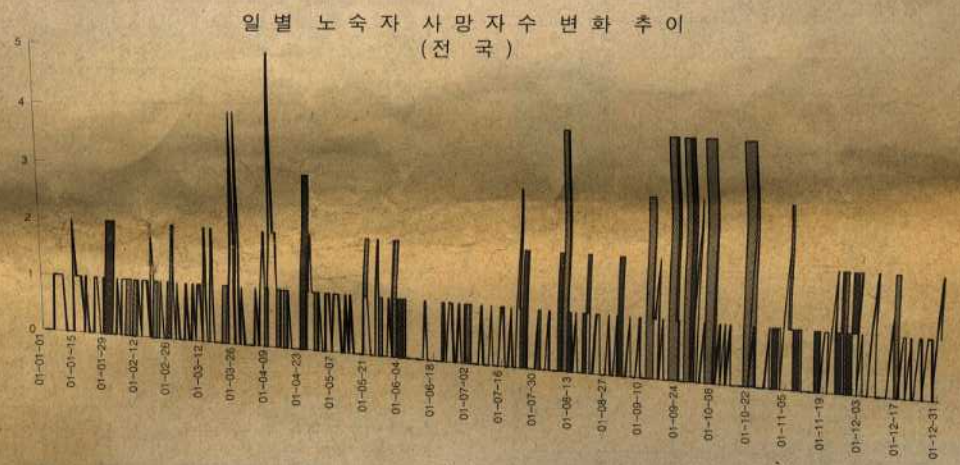


그림 1. 연간 일별 노숙자 사망자수 변화추이 (전국)

1. 사망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전체 사망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었다. 평균연령은 48.3세로서 사망자의 연령 분포는 일반 노숙자들의 연령 구성 분포와 비슷하였다.

표 1. 성별분포

성별	명	%
남자	215	99.1
여자	2	0.9
계	217	100.0

표 2. 연령(세)

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217	48.3	10.3	25	88

표 3. 연령 분포

연령(세)	명	%
20 - 29	2	0.9
30 - 39	34	15.7
40 - 49	99	45.6
50 - 59	55	25.3
60 - 69	19	8.8
70 - 79	5	2.3
80 -	3	1.4
계	217	100.0

2. 사망원인

노숙자들의 사망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손상,중독,외인성질환'으로서 이를테면 '사고'와 관련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34.1%를 차지하였고, 이어 간장질환(13.4%), 악성종양(12.4%), 순환기계질환(11.5%)이 뒤를 따랐다.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사망원인은 맨 마지막 표인 <참고 자료 : 통계청 사망 자료에서 확인된 총 217명의 사망 원인 (질병명)>를 참고하길 바란다.

표 4. 사망 원인 (계통에 따른 구분)

질병군	명	%
간장질환	29	13.4
감염성질환	11	5.1
기타 분류되지 않는 증상 등	21	9.7
내분비계질환	9	4.1
비뇨기계질환	2	0.9
손상,중독,외인성질환	74	34.1
순환기계질환	25	11.5
신경계질환	4	1.8
악성종양(암)	27	12.4
정신과질환	11	5.1
호흡기계질환	4	1.8
계	217	100.0

3. 노숙자들의 사망 시기와 사망 지역

2001년도에 한정된 결과이지만, 노숙자들의 사망 시기를 월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적(217명 자료)으로는 4월과 9월에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각각 12%), 이 시기들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개의 봉우리를 그리는 듯한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이를 서울시 지역에 한정하여 분석해 보면(102명 자료만 분석), 8월 이후 하반기에 사망자가 집중되는 듯한 현상이 관찰된다.

표 5. 사망시기에 따른변화 (2001년)

월별	명	%
1	16	7.4
2	16	7.4
3	21	9.7
4	26	12.0
5	15	6.9
6	9	4.1
7	14	6.5
8	16	7.4
9	26	12.0
10	17	7.8
11	23	10.6
12	18	8.3
계	217	100.0

표 6. 서울시 지역의 월별 사망자수 변화 (2001년도, 102명)

월별	명	%
1	7	6.9
2	7	6.9
3	8	7.8
4	8	7.8
5	8	7.8
6	7	6.9
7	5	4.9
8	11	10.8
9	14	13.7
10	4	3.9
11	12	11.8
12	11	10.8
계	102	100.0

사망 지역을 '도'단위로 구분하여 보면, 서울특별시 102명(47.0%), 경기도 42명(19.4%), 인천광역시 12명(5.5%), 전라남도 11명(5.1%)의 순서로 확인된다. 전체 사망자의 3/4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구는 영등포구로서 전체 102명의 서울시 지역 사망자중 13명(12.7%)을 차지하였다.

표 7. 전체 지역별 사망자 현황 (2001년도, 217명)

Table with 3 columns: 지역별 구분, 명, %. Lists death counts by region including Gyeonggi-do (42), Seoul (102), and various provinces.

표 8. 사망 지역을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각 구별 사망자 현황 (102명자료)

Table with 3 columns: 구분, 명, %. Lists death counts by district in Seoul, with Yeongdeungpo-gu (13) and Jung-gu (2) having the highest counts.

<참고자료> 통계청 사망 자료에서 확인된 총 217명의 사망 원인 (ICD10코드-질병명)

Table with 3 columns: 질병명, 명, %. Shows leading causes of death such as 간경변증 (17), 간세포 암종 (7), and 간의 농양 (1).

Table with 3 columns: 질병명, 명, %. Lists specific medical conditions like 급성 골수성 백혈병 (1), 급성 알콜중독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1), and 기타 불명확하고 상세불명의 사인 (21).

Table with 3 columns: 질병명, 명, %. Lists conditions like 뇌실내 뇌내출혈 (3), 뇌의 압박 (1), 뇌진탕 (1), and various liver-related conditions.

Table with 3 columns: 질병명, 명, %. Lists conditions like 상세불명의 간부전 (1), 상세불명의 간질 (1), 상세불명의 간질 지속상태 (1), and various mental health conditions.

Table with 3 columns: 질병명, 명, %. Lists conditions like 상세불명의 치매 (2), 상세불명의 패혈증 (4), 상세불명의 폐렴 (1), and various respiratory and infectious diseases.

Table with 3 columns: 질병명, 명, %. Lists conditions like 하해부, 골반 및 사지들을 포함한 흉곽의 골절 (1), 알콜중독에 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2), and other miscellaneous conditions.

첫 번째 이야기

"지하철 전통차에 치어 죽음을 맞이한 황광기씨"

7월초면 한창 더위가 시작될 때인가 봅니다. 영등포 공원을 지나칠 때면 나무 밑에서 박스를 깔고, 변변찮은 안주와 함께 술을 벌컥이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큰소리로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며 소리치고, 술을 달라고 하는 눈에 띄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황광기아저씨였습니다. 30대후반의 젊은 나이였고, 옷가지를 얻기 위해서나 말동무가 필요해서 종종 노숙인주거편의시설 '햇살보금자리'를 들릴 때면 민취된 채 '웃달라', '컵라면 달라', '조용히 할테니 잠 좀 자게 해달라' 큰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제가 그 아저씨를 접했을 때 술을 먹지 않은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등포공원에서 노래자랑을 할 때 참여한 아주머니에게 김밥을 달라고 조르다가 경찰에 신고되어 3개월정도 옥살이를 하다가 찾아왔을 때는 얼굴이 하얗게 알코올 끼라고는 찾을 수 없을 만큼 좋아했습니다. 바로 그때 외에는 술을 먹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노동절이나 노동자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함께 참여하여 소리치기를 즐겨하곤 했는가 봅니다. 한번은 빨간피를 두르고, 노래를 부르며 '햇살보금자리'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놈의 세상을 뒤집어 버려야 한다고 큰소리로 소리치곤 했습니다. 아직도 그 말이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공원을 지나칠 때마다 얼굴을 마주치곤 했는데, 한번도 멀쩡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래의 글들은 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거리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명의 상담 실무자들이 한분 한분 상담과정에서 만났던 분들의 죽음을 접하며 쓴 글들입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 분주히 움직일 때 어디 갈 곳도 없이 거리의 공공장소에서 하루 밤 이슬을 피하며 잠을 청하던 그들을 만나 커피도 나누어 마시고, 담배도 나누어 피며 그들의 평온한 하루 밤을 기원했지만 다음날 찾아 간 거리의 어느 곳에서 싸늘하게 죽음을 맞이한 노숙인들에 대한 이야기 글들입니다.



항상 얼굴은 상처투성이로 성한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고, 광기어린 세상에서 그 자신의 이름처럼 광기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쳐버렸는지 그만, 영등포역 물류창고 지하철로를 뛰어들어 전동차에 치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가 이마에 두른 "단결"이라고 쓰여진 빨간띠는 아직도 제 사무실 옷걸이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빨간띠를 볼 때면 앞니가 빠져서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아저씨의 얼굴이 눈앞에 선하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예수와 같은 나이에 죽음을..."

33세이면 예수의 마지막 삶과도 같은 나이입니다.

7월 20일 오전 8시 50분 경 영등포공원 잔디밭 위에서 강마르고, 검게 그을린 얼굴로 힘없이 누워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두들 수군수군 물려들었다가 얼굴을 돌리며 돌아서곤 했습니다. 모두들 얼굴빛이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힘없이 고개가 숙이더군요!

그 전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답니다. 저녁이 되면서 비 피할 곳을 찾아 다녔지만, 마땅한 곳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 맞은 생쥐 모습인 그를 반겨줄 곳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지하철이 끊기는 저녁 11시 이후가 아니면 비가 많이 와도 철도역 공안들 때문에 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공원 나무 가지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너무나 추운 나머지 결국 술을 먹게 되었는가 봅니다. 너무 춥고 옷까지 흠뻑 젖다보니 추위를 달래기 위해 연거푸 술을 먹게 되고 제때 식사도 못해 잠자리도 불편한 허약한 몸은 이내 취해버렸던 모양입니다.

결국 잔디밭 위에서 비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온몸으로 그 차가운 비를 맞으며 꼬박 밤을 지새웠던 것 같습니다. 잠이 들었다가 깨다가... 잠이 들었다가 깨다가...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생각들을 했을지... 33살 그가 무엇을 원했는지?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주변에서 노숙 생활을 함께하는 이웃들... 그리고, 상담활동을 하는 저를 비롯한 실무자라는 사람들...

새벽이 되어서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빗줄기는 아침쯤이 되어서야 그쳤는가 봅니다.

아침 일찍 전화가 울려서 받았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000가 죽어요!! 빨리 빨리 내려와요!!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싸늘하게 굳어져버린 몸을 보았습니다. 평소 성격이 좋아서 항상 혼자 먹지 않고, 주변 노숙 동료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를 좋아했던 분이라 노숙 동료들 그 누구도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던 사람이었죠!

죽음 직전까지의 모습을 목격했던 아저씨가 하는 말이 "9시 5분전쯤 가만히 누워있는 그가 갑자기 목에 핏줄이 서도록 숨을 몰아쉬더니 그냥 조용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119에 연락하고, 저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처럼 불행하지 않고,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해봅니다.

더 이상 뭐라 하고 싶은 말이 없네요... 그동안 제가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던 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생각 밖에 없습니다. 이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이야기

"두 군데 병원에서 입원 불가관정을 받고, 이를 후 복수, 터져 병원 옮겨져 죽음을 맞음"

나즈마한 키에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에 구릿빛 눈망울을 가진 황달 증세, 그리고 간암으로 추정되는 34세의 그 남자는 만삭이 된 여자처럼 배가 잔뜩 불러있었다.

항상 단짝처럼 붙어다녔던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두 다리 소아마비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엉덩이에 욕창과 치질이 생겨서 고생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렇게도 그 사람을 챙겨주면서 보살폈던 그 남자는 오늘도 술에 취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한참이나 그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마치 딴 세상에 와 있는 느낌처럼 그렇게도 인간적일 수가 없었다. 젊은 시절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어린 나이에 버스정비공으로 일하면서 자그마치 15년을 그곳에서 청춘을 바쳤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사장의 부정부패로 문제가 생겨 노조를 만들게 되고, 부당 것에 대해 올바르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그 회사를 그만두게되고, 그것으로부터 직장취업에 길이 막히면서 조금씩 먹기 시작했던 술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항상 영등포역 주변의 상가관리 아저씨, 꽃가게 사장님, 신성상회 집사님 등 등 지역 주민들과도 모두 그 남자를 그렇게 따뜻하게 챙겨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던 그가 7월말에 몸이 너무 아팠는지, 병원가기를 한사코 반대했던 사람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두군데의 병원이었다. 그런데 강남시립병원에서는 약간 먹으면 낳을 수 있으니까 통근치료를 받으라는 것이었고, 동부시립병원은 내부방침상 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입원이 불가하다면서 거절을 받았다. 결국, 이틀후 영등포공원에서 노숙하던 중 복수가 터지고, 병원에 실려가기를 반복하다가 8월 3일 새벽 1시에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남자의 나이 34세였다.

모든 것이 정말 싫었다. 다 때려치우고 싶었다. 이게 뭐냐고, 정말 병원들을 다 엮어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내친김에 두 병원에 전화를 돌렸다. 모두 할말이 없다고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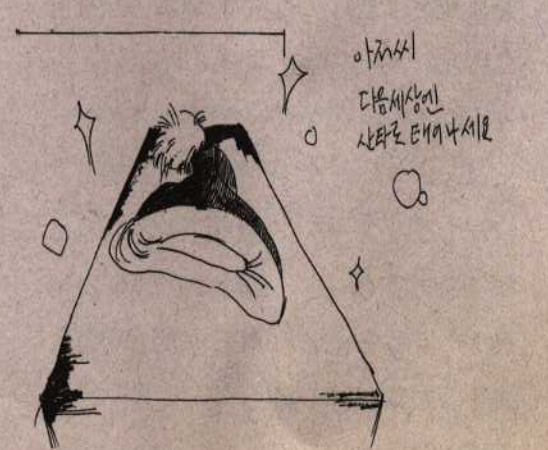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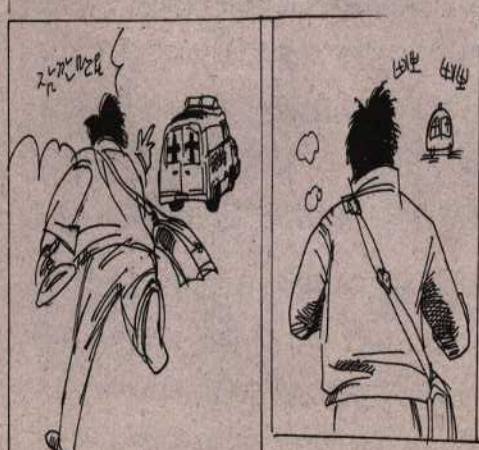
사람이 죽었는데 그들의 미안하다는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아직도 검게 그을린 그 남자의 웃음이 눈앞에 선하게 다가온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는 기사가, 들을 수 없게 된 질문"

노숙인 문제에 대한 기사를 맡은 후 노숙인이 노숙인으로 보이지가 않았다. 노숙인들이 주로 모여 있다는 서울역, 영등포역과 을지로, 화현 등지를 돌아다니며 내가 보고 느낀 것은 노숙인의 현실이 아닌 '피사체'로서의 노숙인일 따름 아니었던가. 자괴감을 심하게 느끼면서도, 보도가 곧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자위하며 조심스레 서터를 눌렀다. 혹여나 눈치 챌 새라 짐짓 판정도 피워 가면서.

지난 12일(화)에는 영등포역에서 몰래 카메라를 품고 돌아다녔다. 한참을 후미고 돌아다니면서 몰래몰래 사진 몇 장을 찍었으나, 혼자서 노숙인에게 말을 걸 용기는 나지 않았다. 아니, 도움을 주고 싶다는 가장된 표정으로 다가가 기사 거리를 때내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생각보다 더 힘겨워 보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2001년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Homeless Memorial Day)'를 준비하며...

그렇게 착잡한 심정으로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실직 노숙인 무료 상담소'라고 적혀 있는 컨테이너박스가 눈에 들어 왔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인터뷰나 따 붙 요량으로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숙 인다시서기지원센터'의 이범승 씨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이범승씨는 내가 던 지는 시시콜콜한 질문들에 내내 집중하지 못했는데, 다른 봉사자들이나 상담 받으 러 온 노숙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나 외의 인터뷰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알맹이' 가 나오지 않자, 인터뷰에 집중해달라고 부탁하려는 찰나 이범승 씨는 오히려 선 수를 졌다. "내일 다시 오세요"라고 다음 날, 오후 8시 즈음 다시 한번 찾아간 나는 일단, 컨테이너 안이 인터뷰를 할 수 있을 만큼 한적한지 부터 살펴보았다. 컨 테이너 안은 한산했다. 회심의 미소를 지 으며 본격적인 인터뷰 준비를 하려는데 이범승씨는 이번에도 '아직' 이란다.

대신 나에게 봉사자들이 입는 옷을 입힌 채 영등포역 순회를 시작하자고 제안했 다. 순회라는 건 별 것 아닌 것 같으면서 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면서 역 안에서 TV를 보고 있는 노숙인, 이미 자리를 펴 고 누워있는 노숙인, 바람막이로 세워 놓 은 박스 안에 들어가 계신 할머니 등 노 숙인 모두에게 일일이 건강과 안부를 물 으며 건강이나 안전 상태를 체크했다.

영등포역 옆 공원으로 향하는 길,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숙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다. 옆에서 크게 소리쳐도 들리지 않 는지, 눈을 크게 뜨고 신음만 토하는 모 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지만 매일 같이 일 어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몇몇의 인원이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단 다른 구역을 돌아보고 오기로 했다.

20여분 후, 다시 돌아왔을 때, 웬일인지 쓰러져 있던 그 노숙인은 보이질 않았다. 좋지 않은 느낌이 스칠 무렵 다른 노숙인 으로부터 "어떤 이가 죽어 실려 갔다" 는 이야기만을 전해 듣게 되었다. 아무래 도 우리가 '목소리가 들리세요?'라고 물었던 것이 그 분이 세상과 가졌던 마지막 대화였던 것 같다. 차갑고 더러운 역 전에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상황 에서 도시가, 사회가 버린 한 '인간'은 그렇게 죽어갔다.

"그 때 119에 신고했다더라면..." 이라고 되뇌이는 이범승씨에게 던질 질문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임김우주 기자(오 마이뉴스)

다섯 번째 이야기

"분신으로 생을 마감한 신성지씨의 넋을 기리며..."

개천절 휴일이었던 지난 10월 3일 '새전북일 보'의 보도로 알려진 노숙인 신성지씨의 분신 소식은 여러 실무자들의 가슴을 치게 만든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이 보도를 접한 후 신 성지씨의 분신 소식을 세상에 알린 '새전북일 보' 기자와의 연락을 통해 그의 고단했던 삶 의 내력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그의 내력을 들을수록 우리 사회의 낙인과 냉대가 얼마나 높았던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죽음은 지난 수십년간 유지 확대되어 상당수 국민들의 의식을 좁혀고, 통일시대 로의 진전을 가로막던 냉전이데를로기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를 꿈꾸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난 한 자, 빈곤한 계층의 노숙인과 같은 존재 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낙인이 갈수록 이데 올로기화 되어 무섭게 굳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올해 47세인 그는 오토바이에 리어커를 매 달아 만든 자신의 재산목록 1호를 이끌고 전주시내를 돌며 폐품을 수거해 돈을 벌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었다고 한다. 주변에 그 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를 지켜 본 주변 사람들은 고인 신성지씨는 그런 어려 운 생활이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만은 지키고자 노력했고, 심성은 고운 사람이였 다고 한다.

온 몸에 입은 70%의 화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그 다음날 새벽 5시 끝내 숨을 거 둔 신성지씨... 그는 분신 직전 뿌린 50여장 의 유서에서 "평생 노숙을 하며 살아 왔지 만 군대도 다녀왔고 예비군 훈련도 받는 등 국가에 할만큼 다했다"며 "이런 나와 같은 노숙자에게 의료보험이 부과돼 말소처리를 할 정도였다"고 자신을 단속한 공무원들을 향해 억울함과 분함을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서에서 "자유를 느끼며 살 수 있는 다리 밑이 더 좋은 데도 공무원들 이 행려자 수용소에 입소하라니 내가 갈 곳 은 이길 밖에 없으며, 일본의 우에노공원처

립 노숙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의 미 있는 말을 던지며 끝을 맺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몸에 불을 붙이며 세상 을 향해 뿌린 50여장의 유서 내용을 옮기 며 고인의 넋을 기려본다.

浪人 신성지씨의 유서

참으로 뭐 같은 세상이올시다. 평생 노숙하던 낭인이지만 국가에 할 짓 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오 군대도 다 다녀왔고 다리밑에 사는 당신이 무엇이 지 낄 것이 있다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 하느냐 우스게 소리 들었고, 추령메고 낭마루 좁던시절 이변하여 손수레 끌고서 국도 변에 떨어진 폐품은 주위 팔아서 전국 방 방곡곡 떠돌며 세월을 보냈건만 자원없는 국가에 일익하여 구걸하지 아니하고 살아 간다는 금지를 가지고서 나 자신의 처지 를 위안하며 살아갈 수 있었소

하지만 지금은 그 위안이니마 잃어버렸 소 그것도 어린시절 보냈던 고향땅이라 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에게 의 료보험 41만원 부과되어 항의했지만 계속 독촉장이 날아와 동사무소에서 차라리 말 소사키라 했더니 그대로 되더군요. 그뿐 만 아니라 다리밑까지 구청에서 와서 날 더러 떠나라는 것이외다. 아니면 행려자 수용소에 입소하라니!!!

이것 보시오 나 낭인은 서울대화로 마로 니에 공원에서대 전 분창교 밑에서도 아 니 어느곳에서도 쫓겨난 적이 없소 노태 우씨가 대통령 선거 되던때 호성동 행려자 수용소에서 한방에 있던 자들에게 국민학 교 동창이 입소한지 이틀만에 맞아죽는 모 습을 보았소 이런내가 가야할 곳은 바로 이길 일 것 같아 이 길을 택합니다.

일본 우에노 공원처럼 노숙자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가 아 아닐까 생각하며.....

浪人 신성지

1998년 IMF 이후 노숙인 문제가 사회문제화 된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줄곧 거리 상담활동을 펼쳐왔던 어느 상담원은 이야기 합니다.

1998년 거리 상담활동이 시작된 초창기에 만났던 노숙인 분들이 해가 지날수록 차츰 차츰 보 이질 않는 것은 그분들 중 상당수가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번째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를 준비 하며 노숙인의 거리 노숙생활을 주제로 하는 다 큐멘터리를 짤려는 어떤 다큐멘터리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1998년 당시 6개월 가량을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노숙인의 하루하루 를 카메라에 담아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제작 했던 분이였습니다.

그 작가는 5년이 흐른 지금, 그때 만났던 노숙인 형들(작가의 표현에 의하면)의 현재를 다시 카메라에 담기 위해 그 노숙인 형들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불췌 "예전 반 년 이상 같이 노숙생활을 하며 영상물을 찍을 때 만났던 노숙인 형들이 보이질 않는데...죽은 사람이 많더라구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 2001년, 하루에 한명 이상 1년에 300여명 이상의 노숙인이 사망하고 있 다는 '노숙인 사망수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01년 11월 발표)'는 2002년 올해도 추모제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실천의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함께 추모의 마음을 나누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 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기 위해 촛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2년 두번째'거리 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에 함께 합시다.

- 일시 : 2002년 12월 23일(월요일) 늦은 6시
- 장소 : 서울역 광장
- 주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주최 : 노숙인복지와인권실천하는사람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후원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서울 자유의집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행사 순서

[식전행사]	[본 행사]
14:00~17:30 '노숙인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캠페인	18:00~18:05 개회사
16:00~17:30 성균관대학교 노숙인지원동아리 H.P.A와 감리교신학대학교 도시빈민선교회의 '사랑의 의류 나눠주기' 행사	18:10~18:30 추도사
	18:35~18:50 죽은자의 넋을 기리는 마임공연
	18:55~19:00 진혼 시 낭송
	19:10~19:40 서울역 광장 및 지하도 촛불행진
	19:40~19:50 폐회

지금까지 거리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인들의 넋에 고개숙여 명목을 빕니다.